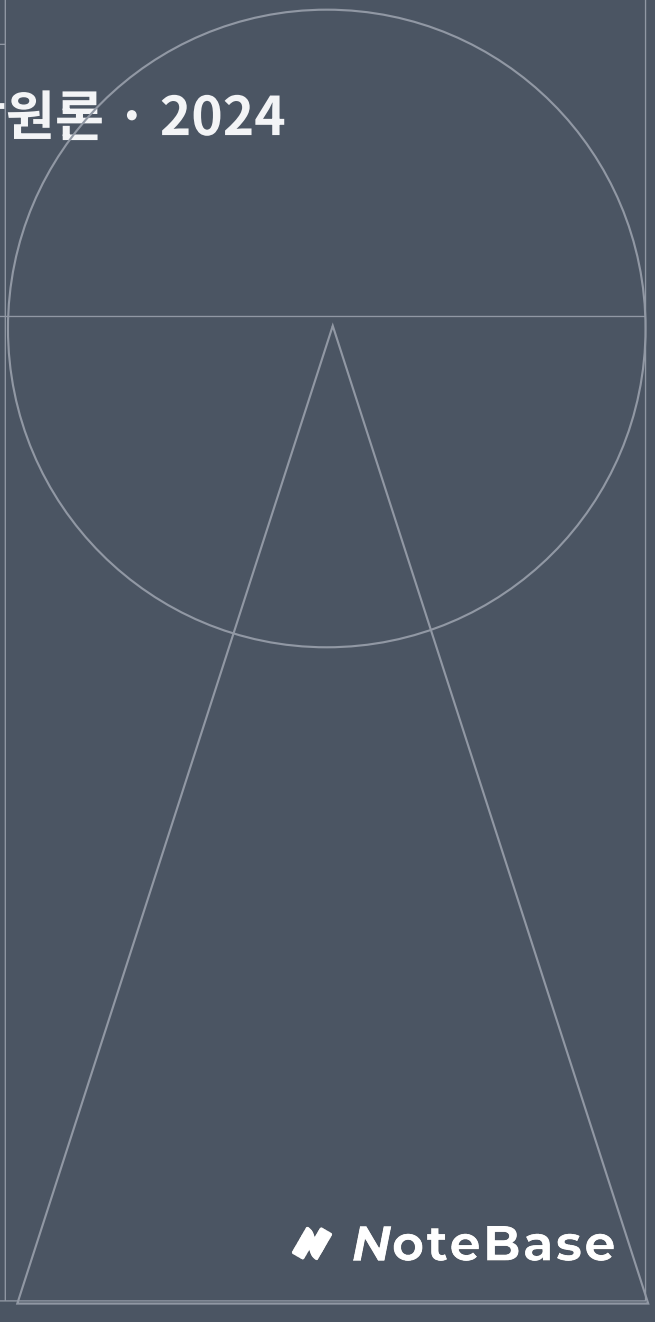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4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4

문 1.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는 것은?

① 빵의 재료로 사용된 밀가루의 가치

②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③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임대료

④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판매액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는 생산물의 범위를 묻는다.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다.

핵심 개념

최종재는 다른 재화 생산에 다시 투입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소비·투자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GDP에 포함된다. 중간재는 다른 재화 생산의 원재료로 쓰이므로 최종재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과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지하경제 거래는 통상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빵의 재료로 사용된 밀가루'는 빵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이므로 그 가치가 빵의 가격에 포함된다. 밀가루 가치를 빵과 별도로 GDP에 더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틀린 표현 '빵의 재료로 사용된 밀가루의 가치' → 올바르게는 '최종재인 빵의 가치 또는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가 GDP에 포함된다.

② X.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가격이 매겨진 서비스가 아니므로 GDP에 산입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 올바르게는 '시장 거래를 통해 가격이 관측되는 서비스의 가치'가 GDP에 포함된다.

③ O. 주택 임대료는 주택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된 대가이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임대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서비스의 시장가치로 GDP에 포함된다.

④ X.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판매액은 거래가 공식적으로 신고·포착되지 않아 통상 GDP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판매액' → 올바르게는 '공식 통계에 포착되는 시장거래의 최종재·서비스 판매액'이 GDP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시장에서 실제로 팔린 밀가루라는 점 때문에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빵의 원재료이면 중간재이다. ④도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GDP에 포함된다고 보기 쉽지만, 지하경제 거래는 공식 GDP 통계에서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이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서비스의 시장거래인지 확인한다. 다른 재화 생산에 들어가면 중간재로 제외하고, 무급·비시장 활동이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도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GDP는 국내의 최종재·서비스 시장가치이다. 중간재·무급 가사노동·지하경제는 제외하고, 임대료 같은 시장 서비스는 포함한다.

NoteBase

문 2.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고용 정보를 고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직업훈련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④ 대규모 고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업의 발생 원인을 줄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 상태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극적 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구직 정보 부족, 직무 능력 부족, 구직자와 일자리의 연결 문제를 완화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구직하는 동안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며, 실업 자체를 직접 줄이는 정책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용 정보를 고시하는 홈페이지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마찰적 실업을 완화한다.
② O. 직업훈련학원 보조금은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높여 요구되는 기술과 보유 기술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③ X.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업 기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실업급여는 실업 자체를 직접 줄이기보다 실직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다.
④ O. 대규모 고용박람회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일자리 정보 탐색과 매칭 비용을 낮추므로 마찰적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실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실업 감소책으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중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도이고, 고용 정보·직업훈련·고용박람회처럼 취업의 장애를 직접 제거하는 정책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이 구직 정보, 직무 능력, 일자리 연결을 개선하면 실업 감소책으로 판단한다. 반면 실직 후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면 소득보장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 제공·직업훈련·고용 연결은 실업 감소, 실업급여는 소득 보장이다.

NoteBase

문 3.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정부지출 증가

② 조세 감면

③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각

④ 지급준비율 인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기침체 때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지만,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줄어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지출 증가는 정부지출 자체를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므로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② O 조세 감면은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③ X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민간이 국채를 사면서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여 총수요가 위축된다. 틀린 표현은 '국채 매각'이며,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국채 매입이 옳다.
④ O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늘려 통화량과 신용공급을 확대하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국채 거래의 방향을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통화량 증가, 국채 매각은 통화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기침체 회복 정책은 총수요와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인지 판단한다. 정부지출 증가·감세·지급준비율 인하·국채 매입은 확장적이고, 그 반대 방향은 긴축적이다.

암기 포인트

불황에는 재정은 지출↑·세금↓, 통화는 국채 매입·지급준비율↓이다.

NoteBase

문 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옳은 진술은?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을 투입할 때, 甲국은 하루에 1인당 X재 3개 또는 Y재 6개를 만들 수 있으며, 乙국은 하루에 1인당 X재 3개 또는 Y재 8개를 만들 수 있다. (단, 양국의 노동 규모와 비용은 동일하다)

① 甲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② 甲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③ 乙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④ 乙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구분하고, 기회비용으로 두 나라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우위는 같은 양의 생산요소로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드는 능력이다. 비교우위는 한 재화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 즉 기회비용이 더 낮은 경우이다.
甲국은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재 2개이고, 乙국은 Y재 8/3개이다. 따라서 X재는 甲국의 기회비용이 더 낮다.
甲국은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X재 1/2개이고, 乙국은 X재 3/8개이다. 따라서 Y재는 乙국의 기회비용이 더 낮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甲국과 乙국은 모두 하루에 X재 3개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甲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절대우위'이며, 올바르게는 '乙국은 Y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진다.'이다.

② X
甲국은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재 2개로, 乙국의 Y재 8/3개보다 낮다. 따라서 甲국은 Y재가 아니라 X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틀린 표현은 'Y재'이며, 올바르게는 '甲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이다.

③ X
乙국도 X재를 하루에 3개 생산하므로 X재 생산에서 甲국보다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이며, 올바르게는 '乙국은 Y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이다.

④ O
乙국의 Y재 1개 생산 기회비용은 X재 3/8개로, 甲국의 X재 1/2개보다 낮다. 따라서 乙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오답 포인트

X재 생산량이 두 나라에서 모두 3개라는 점을 놓치면 ① 또는 ③처럼 절대우위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또한 생산량이 더 많은 Y재에서의 비교우위를 바로 단정하지 않고, Y재 1개당 포기하는 X재의 양을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같은 생산요소 투입량에서 생산량이 더 큰 나라를 찾아 절대우위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각 재화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더 낮은 나라를 찾으면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량 비교,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비교이다. 이 문항에서는 甲국은 X재, 乙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NoteBase

문 5.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수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 존재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③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인 외부효과의 사례로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다.

④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실패의 원인인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수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모두 지닌 재화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 성질이고, 배제불가능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성질이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소비 활동이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이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늘려 시장실패를 낳는다.
공공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어 무임승차가 발생하므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되고, 이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순수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비배제성)을 지니는데, 선지는 이를 '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라고 서술하였다. 순수공공재의 소비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적 성질을 가지므로, '경합성'이 아니라 '비경합성'이 옳다. 올바른 표현은 '순수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 존재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② O.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면 정부는 조세·보조금·규제·직접공급 등의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③ O. 환경오염은 오염을 발생시킨 생산자나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은 피해가 제3자에게 전가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④ O.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커져 시장균형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순수공공재의 배제불가능성은 옳게 제시하면서 비경합성을 '경합성'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을 지니므로 '경합성이 존재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한 단어(경합성↔비경합성)만 뒤바꾸어 틀린 선지를 만든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관련 선지는 먼저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 모두 있는지를 확인한다. 두 성질이 모두 있으면 순수공공재이며, 선지에서 '경합성'과 '비경합성', '배제성'과 '배제불가능성'을 뒤바꾸어 놓았는지 특히 주의한다. 외부효과 선지는 제3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지 확인하여, 그렇다면 부정적 외부효과와 시장실패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모두 갖는다. 제3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면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NoteBase

문 6.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클 때, 해당 공공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② 내부수익률이 0보다 클 때, 해당 공공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③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해당 공공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④ 공공사업의 편익은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사업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비용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이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편익-비용비율은 할인한 총편익을 할인한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며,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한 총편익에서 할인한 총비용을 뺀 값이며, 0보다 크면 사업이 순편익을 만든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사회적 할인율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할인한 편익이 할인한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내부수익률이 0보다 클 때'이다. 내부수익률이 양수라는 사실만으로는 현재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에서 순현재가치가 양수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③ O: 순편익의 현재가치, 즉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할인한 편익의 합이 할인한 비용의 합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④ O: 공공사업의 편익은 이용자가 직접 얻는 직접편익과 파급효과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내부수익률의 비교 기준을 0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내부수익률은 0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과 비교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편익분석의 세 기준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은 1보다 큰지,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큰지,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B/C는 1 초과, NPV는 0 초과, IRR은 사회적 할인율 초과일 때 타당성이 있다.

NoteBase

문 7. 거시경제변수를 유량변수와 저량변수로 구분할 때, 저량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득
② 실업자 수
③ 경상수지
④ 순수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시경제변수를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유량변수와 특정 시점에 측정하는 저량변수로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다.

핵심 개념

유량변수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양으로, 기간을 붙여 측정한다. 저량변수는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으로, 시점을 붙여 측정한다. 소득·경상수지·순수출은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결과인 유량이고, 실업자 수는 어느 한 시점에 실업 상태인 사람의 수인 저량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발생한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유량변수이다. 틀린 표현은 '저량변수'에 해당한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유량변수이다.
② O. 실업자 수는 특정 시점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므로 저량변수이다.
③ X. 경상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재화·서비스 거래, 본원소득, 이전소득 등에서 발생한 대외거래의 수지를 나타내므로 유량변수이다. 틀린 표현은 '저량변수'에 해당한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유량변수이다.
④ X. 순수출은 일정 기간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므로 유량변수이다. 틀린 표현은 '저량변수'에 해당한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유량변수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수지'와 ④의 '순수출'은 잔액처럼 보이지만, 모두 일정 기간의 거래를 합산한 결과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그 시점에 몇 명이 실업자인지를 세므로 저량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수 앞에 '한 해 동안', '분기 중'처럼 기간을 붙여야 의미가 완성되면 유량변수이고, '연말 현재', '특정 시점'처럼 시점을 붙여 측정하면 저량변수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간의 발생량은 유량, 시점의 보유량·인원은 저량이다.

NoteBase

문 8.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

② 자동안정화장치의 예로 소득세와 실업보험이 있다.

③ 정부의 재량지출은 자동안정화장치에 포함된다.

④ 소득증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수록 자동안정화장치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안정화장치의 구별 및 자동안정화장치의 작동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가 매번 별도의 정책결정을 하지 않아도 경기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이 자동으로 변하여 총수요 변동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기상황을 판단하여 지출·조세를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정책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늘면 세금이 늘어 가처분소득 증가를 줄이고, 실업보험은 불황 때 급여지급을 늘려 소득감소를 완화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에 맞춰 세금과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하므로 재정당국의 의도적인 정책개입 없이도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
② O. 누진소득세와 실업보험은 대표적인 자동안정화장치이다. 호황에는 소득세 부담이 늘고, 불황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경기변동을 완화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정부의 재량지출'이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의도적 결정으로 바뀌는 재량적 재정정책에 속하며 자동안정화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안정화장치에는 법·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소득세와 실업보험 등이 해당한다.
④ O. 소득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 증가폭이 커져 가처분소득과 소비의 변동이 더 크게 흡수되므로 자동안정화 효과가 강해진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재정지출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재량지출과 자동 이전지출을 혼동하게 한다. 실업급여처럼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출과 정부가 별도로 결정하는 재량지출은 구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가 경기상황을 보고 별도로 지출·세율을 바꾸어야 하면 재량적 재정정책이다. 소득·실업 등 경제상태의 변화만으로 세금이나 급여가 자동으로 변하면 자동안정화장치이다.

암기 포인트

자동안정화는 '소득세·실업보험은 자동', 재량지출은 '정부 결정 후 작동'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9. X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Q = 100 - P$이고, X재의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은 각각 40으로 동일하다. X재 시장이 독점일 경우, 독점생산자의 가격(P)과 생산량(Q)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생산자 가격(P): 30, 생산량(Q): 70

② 생산자 가격(P): 40, 생산량(Q): 60

③ 생산자 가격(P): 60, 생산량(Q): 40

④ 생산자 가격(P): 70, 생산량(Q): 3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MR = MC$를 이용하여 생산량과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 = 100 - P$이므로 역수요함수는 $P = 100 - Q$이다. 한계비용은 $MC = 40$이고, 평균비용도 40이지만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평균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비교하여 정한다.

사용할 공식

독점기업은 $MR = MC$인 생산량을 선택한다. 역수요함수 $P = 100 - Q$에서 총수입은 $TR = P \times Q = (100 - Q)Q = 100Q - Q^2$이므로, 한계수입은 $MR = 100 - 2Q$이다. 가격을 수요함수에 바로 대입하지 않는 이유는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릴 때 모든 판매량의 가격도 낮아져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100 - 2Q = 40$이다.
2. 따라서 $2Q = 60$, $Q = 30$이다.
3.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 = 100 - 30 = 70$이다.

선지 판단

① X: $P = 30$, $Q = 70$은 수요함수 자체에는 맞지만 독점의 이윤극대화 결과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생산량 70이며, 올바르게는 $Q = 30$이다.

② X: $P = 40$, $Q = 60$은 가격을 한계비용 40과 같게 둔 완전경쟁의 결과이다. 독점에서는 $P = MC$가 아니라 $MR = MC$를 적용하므로, 올바르게는 $P = 70$, $Q = 30$이다.

③ X: $P = 60$, $Q = 40$은 $MR = 40$을 $100 - Q = 40$으로 계산하여 한계수입과 가격을 혼동한 값이다. 올바른 한계수입은 $MR = 100 - 2Q$이므로 $Q = 30$이다.

④ O: $MR = MC = 40$에서 $Q = 30$이 도출되고, 이에 대응하는 가격은 $P = 7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처럼 독점에서도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는 함정이 핵심이다. 독점의 생산량 결정에는 $MR = MC$를 쓰고, 그 생산량에 대응하는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찾는다. ③은 선형수요의 한계수입 기울기가 수요곡선보다 두 배 가파르다는 점을 놓친 경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역수요함수 $P = a - bQ$가 주어지면 먼저 $MR = a - 2bQ$를 만든 뒤 $MR = MC$로 생산량을 구한다. 그 다음 구한 Q를 역수요함수에 대입하여 가격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생산량에서 $MR = MC$,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10. 어느 독점기업은 X재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 제1공장과 제2공장의 한계비용함수는 각각 $MC_1 = 100 + 4Q_1$, $MC_2 = 180 + 2Q_2$이다. 이 기업이 두 공장에서 X재를 140단위 생산하고자 할 때, 제1공장과 제2공장의 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Q_1과 Q_2는 각각 제1공장과 제2공장의 X재 생산량이다)

① 제1공장 생산량(Q_1): 60, 제2공장 생산량(Q_2): 80

② 제1공장 생산량(Q_1): 70, 제2공장 생산량(Q_2): 70

③ 제1공장 생산량(Q_1): 80, 제2공장 생산량(Q_2): 60

④ 제1공장 생산량(Q_1): 90, 제2공장 생산량(Q_2): 5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일한 재화를 두 공장에서 생산할 때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배분, 즉 두 공장의 한계비용을 같게 하는 조건을 묻는다.

조건 정리

총생산량은 $Q_1 + Q_2 = 140$이다.
제1공장의 한계비용은 $MC_1 = 100 + 4Q_1$, 제2공장의 한계비용은 $MC_2 = 180 + 2Q_2$이다.
두 공장 모두 생산하므로 비용최소 배분에서는 $MC_1 = MC_2$가 성립한다.

사용할 공식

비용최소 생산배분 조건은 $MC_1 = MC_2$와 $Q_1 + Q_2 = 140$이다.
한 공장의 한계비용이 더 낮으면 그 공장으로 생산을 옮겨 총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최적배분에서는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계산 과정

1. 총생산량 조건에서 $Q_2 = 140 - Q_1$이다.
2. 한계비용 균등조건에 대입하면 $100 + 4Q_1 = 180 + 2(140 - Q_1)$이다.
3. 이를 정리하면 $100 + 4Q_1 = 460 - 2Q_1$, $6Q_1 = 360$이므로 $Q_1 = 60$이다.
4. 따라서 $Q_2 = 140 - 60 = 80$이다. 이때 두 공장의 한계비용은 모두 340으로 같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Q_1 = 60$, $Q_2 = 80$이면 총생산량은 140이고, $MC_1 = 100 + 4 \times 60 = 340$,
$MC_2 = 180 + 2 \times 80 = 340$으로 한계비용이 같다.
② X: $Q_1 = 70$, $Q_2 = 70$이면 $MC_1 = 380$, $MC_2 = 320$으로 제2공장의 한계비용이 더 낮다. 틀린 생산배분 → 올바르게는 제2공장 생산을 늘리고 제1공장 생산을 줄여 $Q_1 = 60$, $Q_2 = 80$으로 배분한다.
③ X: $Q_1 = 80$, $Q_2 = 60$이면 $MC_1 = 420$, $MC_2 = 300$으로 한계비용 격차가 더 크다. 틀린 생산배분 → 올바르게는 상대적으로 한계비용이 낮은 제2공장에 더 많이 배분하여 $Q_1 = 60$, $Q_2 = 80$이 된다.
④ X: $Q_1 = 90$, $Q_2 = 50$이면 $MC_1 = 460$, $MC_2 = 280$이다. 틀린 생산배분 → 올바르게는 제1공장 생산을 줄이고 제2공장 생산을 늘려 두 한계비용을 같게 한다.

오답 포인트

두 공장의 생산량을 단순히 70씩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함정이다. 한계비용함수의 절편과 기울기가 다르므로 균등배분이 아니라 한계비용 균등조건을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공장 생산의 비용최소화 문제에서는 먼저 총생산량 제약식으로 한 공장의 생산량을 다른 공장의 생산량으로 나타낸 뒤, 모든 가동 공장의 한계비용을 같게 두고 푼다.

암기 포인트

다공장 비용최소화: 총량은 합치고, 한계비용은 같게 한다.

NoteBase

문 11.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두 배가 되었을 때, 생산량이 두 배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①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②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체감
③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체증
④ 범위의 경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그 비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는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산출량이 그 비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생산기술의 특성이다.
한계대체율 체감은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에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하려는 한계적 의사가 줄어드는 성질이다.
한계변환율 체증은 생산가능곡선에서 한 재화를 더 생산할수록 다른 재화의 포기량, 즉 기회비용이 커지는 성질이다.
범위의 경제는 여러 재화를 함께 생산하는 비용이 각각 따로 생산하는 비용의 합보다 작아지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두 배일 때 생산량이 두 배를 초과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한계대체율 체감'이다. 한계대체율 체감은 소비자 선택에서의 재화 간 대체 성질이며, 생산요소를 두 배로 늘린 결과를 설명하는 개념은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한계변환율 체증'이다. 한계변환율 체증은 생산가능곡선에서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며, 올바르게는 생산요소의 비례적 증가에 산출량이 그보다 크게 증가하는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범위의 경제'이다. 범위의 경제는 여러 재화를 공동생산할 때의 비용 절감에 관한 개념이며, 올바르게는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모든 생산요소를 비례적으로 늘렸을 때 나타나는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한계대체율은 소비자 이론, ③의 한계변환율은 생산가능곡선의 기회비용, ④의 범위의 경제는 다품목 공동생산의 비용을 다룬다. 모두 '생산요소를 함께 두 배로 늘린다'는 문구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든 생산요소가 같은 비율로 변한다는 문구가 나오면 먼저 규모에 대한 수익을 판단한다. 산출량 증가율이 투입요소 증가율보다 크면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같으면 불변, 작으면 체감이다.

암기 포인트

요소를 2배로 늘려 산출이 2배 초과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이다.

NoteBase

문 12.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비용함수는 $TC = Q^2 + 100$이다. 이 기업의 장기균형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Q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① 장기균형에서의 가격: 10, 장기균형에서의 생산량: 10

② 장기균형에서의 가격: 10, 장기균형에서의 생산량: 20

③ 장기균형에서의 가격: 20, 장기균형에서의 생산량: 10

④ 장기균형에서의 가격: 20, 장기균형에서의 생산량: 2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균형가격이 평균비용의 최저값과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 가격과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비용은 $TC = Q^2 + 100$이다. 고정비용은 100이고, 변동비용은 Q^2이다.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이므로 가격은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과 같다.

사용할 공식

평균비용은 $AC = \frac{TC}{Q} = Q + \frac{100}{Q}$이고, 한계비용은 $MC = \frac{dTC}{dQ} = 2Q$이다. 평균비용이 최소인 생산량에서는 $MC = AC$가 성립하므로 이 조건으로 장기균형 생산량을 구한다.

계산 과정

1. $MC = AC$를 적용하면 $2Q = Q + \frac{100}{Q}$이다.
2. 양변에 Q를 곱하면 $2Q^2 = Q^2 + 100$이므로 $Q^2 = 100$, $Q = 10$이다.
3. 이때 장기균형가격은 $P = MC = 2 \times 10 = 20$이다.

선지 판단

① X: 가격 10, 생산량 10은 틀리다. 생산량이 10일 때 $MC = 20$이고 평균비용도 20이므로 가격은 20이다. 틀린 표현 '가격 10' → 올바르게는 '가격 20'이다.

② X: 가격 10, 생산량 20은 틀리다. 장기균형 생산량은 평균비용을 최소로 하는 $Q = 10$이다. 틀린 표현 '생산량 20' → 올바르게는 '생산량 10'이고, 그때 가격은 20이다.

③ O: $Q = 10$에서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모두 20이므로 장기균형가격은 20, 생산량은 10이다.

④ X: 가격 20은 맞지만 생산량 20은 틀리다. $Q = 20$이면 $MC = 40$으로 가격 20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생산량 20' → 올바르게는 '생산량 10'이다.

계산 결과 가격은 20, 생산량은 10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정비용 100을 무시하고 한계비용만으로 가격을 정하면 장기균형가격을 잘못 구할 수 있다. 장기균형에서는 단순히 $P = MC$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P = MC = AC$가 동시에 성립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장기균형 문제는 먼저 AC를 구하고, $MC = AC$로 평균비용 최소 생산량을 찾는다. 이어서 그 생산량을 MC에 대입해 가격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장기균형: 가격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의 최저값에 같다.

NoteBase

문 13. 환율상승으로 나타나는 J-커브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경상수지가 단기에는 악화되며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변화 양상을 의미한다.

② 마샬-러너(Marshall-Lerner) 조건과 무관하다.

③ 수출입 수량 변동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환율변화 크기만큼 수입 및 수출 가격이 당장 변하지 않는 불완전한 환율전가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율상승(자국통화 가치 하락) 뒤 경상수지가 단기에는 악화되었다가 장기에는 개선되는 J-커브 효과와 마셜-러너 조건의 관계를 묻는다.

핵심 개념

J-커브 효과는 환율상승 직후에는 기존 계약과 느린 수출입 수량 조정 때문에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시간이 지나 수출입 수량이 조정되면 개선될 수 있는 현상이다. 마셜-러너 조건은 수출수요와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의 합이 1보다 커야 환율상승이 장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J-커브 효과는 환율상승 후 경상수지가 단기에는 악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변화 양상을 뜻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마셜-러너 조건과 무관하다'이다. J-커브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수출입 수량이 충분히 반응하여 마셜-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마셜-러너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다'이다.

③ O. 환율이 변해도 수출입 계약, 생산·소비 조정 등으로 수출입 수량은 즉시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량 조정의 시차가 단기 악화와 이후 개선을 낳을 수 있다.

④ O. 환율전가가 불완전하면 환율변화가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에 즉시·완전히 반영되지 않는다. 이 가격 조정의 지연도 경상수지 반응에 시차를 만들어 J-커브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J-커브의 단기 악화만 보고 장기 개선의 조건을 빠뜨리게 한다. 단기에는 수량 조정이 느리지만, 장기 개선이 성립하려면 가격탄력성의 합이 충분히 커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율상승의 효과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판단한다. 단기에는 계약·수량 조정의 경직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고, 장기에는 마셜-러너 조건 충족 여부로 개선 가능성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J-커브는 '처음에는 내려가고, 수량 조정 뒤 올라간다'이며, 장기 개선의 열쇠는 마셜-러너 조건이다.

NoteBase

문 14.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의 황금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인당 생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균제상태를 말한다.

② 1인당 소비를 가장 크게 만드는 균제상태를 말한다.

③ 1인당 자본량을 가장 크게 만드는 균제상태를 말한다.

④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는 균제상태를 말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황금률 자본량이 무엇을 최대화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상상태는 1인당 자본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장기 상태이다. 황금률 자본량은 정상상태 소비, 즉 1인당 소비를 가장 크게 만드는 자본량이다. 정상상태 소비는 생산량에서 감가상각과 자본량 유지를 위한 투자를 뺀 부분이며, 황금률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 유지에 필요한 투자와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1인당 생산을 가장 크게'가 틀린 표현이다. 자본량이 늘면 1인당 생산은 한계생산 체감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으나, 황금률의 목표는 생산 최대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1인당 소비를 가장 크게 만드는' 정상상태이다.
② O. 황금률은 생산량 중 소비로 남는 부분을 가장 크게 만드는 정상상태이므로 1인당 소비를 최대화한다.
③ X. '1인당 자본량을 가장 크게'가 틀린 표현이다. 자본을 지나치게 많이 축적하면 유지투자가 커져 소비가 줄어든다. 올바르게는 '1인당 소비를 가장 크게 만드는 자본량'을 말한다.
④ X.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는'이 틀린 표현이다. 정상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하다. 올바르게는 '일정한 1인당 자본량 중 소비를 최대화하는 상태'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생산이나 자본 자체를 많이 만드는 상태를 황금률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황금률에서는 저축·투자로 자본을 더 늘릴수록 소비가 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유지비용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는 정상상태에서도 자본이 계속 증가한다고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모형의 황금률이 나오면 먼저 '무엇을 최대화하는가'를 확인한다. 답은 생산량이나 자본량이 아니라 정상상태의 1인당 소비이다. 이어 정상상태라는 말이 있으면 1인당 자본량은 일정한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황금률은 자본 최대가 아니라 소비 최대이며, 정상상태의 자본량은 일정하다.

NoteBase

문 15. IS곡선 상의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이 일치한다.

② 계획된 지출과 총소득이 일치한다.

③ 의도하지 않은 재고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S곡선이 나타내는 재화시장 균형과 LM곡선이 나타내는 화폐시장 균형의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곡선은 각 이자율에서 계획지출과 산출량, 즉 총소득이 일치하여 재화시장이 균형인 점들의 조합이다.
LM곡선은 각 소득수준에서 실질화폐잔고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화폐시장이 균형인 점들의 조합이다.
재화시장 균형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재고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IS곡선 위에서는 재화시장이 균형이므로 계획된 총지출과 실제 총지출이 일치한다.
② O. 재화시장 균형의 조건은 계획지출이 산출량과 같다는 것이며, 산출량은 총소득과 같으므로 계획지출과 총소득도 일치한다.
③ O. 계획지출과 산출량이 일치하면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재고의 증감이 없다. 계획된 재고투자는 있을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재고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X. 틀린 표현은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이다. 이는 화폐시장 균형, 즉 LM곡선의 조건이다. IS곡선에서는 계획지출과 산출량이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IS와 LM의 균형조건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실질화폐잔고의 수요·공급 일치는 재화시장 조건이 아니라 화폐시장 조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지출·산출량·소득·재고가 나오면 재화시장과 IS를, 화폐수요·화폐공급·실질화폐잔고가 나오면 화폐시장과 LM을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IS는 투자·저축을 통한 재화시장 균형, LM은 유동성선호·화폐공급을 통한 화폐시장 균형이다.

NoteBase

문 16.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만 존재하는 복점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 = 60 - 2Q$이다. 두 기업의 한계비용이 $MC_1 = MC_2 = 0$일 조건을 만족할 때, 꾸르노 균형에서의 시장생산량과 완전 담합에서의 시장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Q는 두 기업의 생산량의 합이고, P는 시장가격이다)

① 꾸르노 균형 Q: 10, 완전 담합 Q: 10

② 꾸르노 균형 Q: 10, 완전 담합 Q: 15

③ 꾸르노 균형 Q: 20, 완전 담합 Q: 10

④ 꾸르노 균형 Q: 20, 완전 담합 Q: 1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일한 두 기업의 쿠르노 균형 시장생산량과 완전독점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각각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함수는 $P = 60 - 2Q$이고, $Q = q_1 + q_2$이다.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모두 0이다. 쿠르노에서는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며, 완전독점에서는 시장 전체 생산량 Q에 대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둔다.

사용할 공식

쿠르노에서 기업 1의 이윤은 $\pi_1 = (60 - 2q_1 - 2q_2)q_1$이다. 따라서 일차조건은 $60 - 4q_1 - 2q_2 = 0$이다.
완전독점에서는 총수입이 $TR = (60 - 2Q)Q = 60Q - 2Q^2$이므로 한계수입은 $MR = 60 - 4Q$이다.
한계비용이 0이므로 $MR = MC = 0$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쿠르노 균형에서는 대칭성으로 $q_1 = q_2 = q$를 둔다. $60 - 4q - 2q = 0$에서 각 기업의 생산량은 $q = 10$이고, 시장생산량은 $Q = 10 + 10 = 20$이다.

완전독점에서는 $60 - 4Q = 0$이므로 $Q = 1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쿠르노 균형의 시장생산량이 10'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10은 각 기업의 생산량이고, 두 기업 생산량의 합인 시장생산량은 20이다. 또한 완전독점 생산량도 10이 아니라 15이다.

② X. '쿠르노 균형의 시장생산량이 10'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쿠르노 시장생산량은 20이고, 완전독점 생산량 15만 맞다.

③ X. 쿠르노 균형의 시장생산량 20은 맞지만, '완전독점 생산량이 10'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완전독점에서는 $MR = MC$로부터 생산량이 15가 된다.

④ O. 쿠르노 균형의 시장생산량은 20이고 완전독점의 시장생산량은 15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쿠르노에서 각 기업의 생산량 10을 시장 전체 생산량으로 잘못 보는 함정이다. 또한 완전독점은 가격과 한계비용을 같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두므로, $P = MC$를 적용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점 문제에서는 먼저 각 기업의 반응함수를 구한 뒤 대칭조건으로 각 기업 생산량을 구하고, 마지막에 합산하여 시장생산량을 구한다. 독점 문제에서는 총수입을 미분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시장생산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수요에서 동일한 두 기업의 쿠르노 시장생산량은 독점 생산량보다 크다. 이 문제에서는 독점 15, 쿠르노 20이다.

NoteBase

문 17. 정상재인 X에 대한 수요함수는 $Q = 1{,}200 - 4P$이다. X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frac{1}{2}$일 때의 가격은? (단, Q는 수요량이고, P는 가격이다)

① 100

② 200

③ 400

④ 6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varepsilon_P| = \left|\frac{dQ}{dP}\right|\frac{P}{Q}$를 이용하여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 = 1,200 - 4P$이고,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frac{1}{2}$이다. 수요량 Q와 가격 P의 관계를 함께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varepsilon_P| = \left|\frac{dQ}{dP}\right|\frac{P}{Q}$이다. 이 문제의 수요함수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일정한 선형함수이므로, 먼저 $\frac{dQ}{dP}$를 구해 이 공식을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Q = 1,200 - 4P$이므로 $\frac{dQ}{dP} = -4$이다.
2. $\frac{1}{2} = |-4|\frac{P}{Q} = \frac{4P}{Q}$이므로 $Q = 8P$이다.
3. 이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8P = 1,200 - 4P$, 따라서 $12P = 1,200$이므로 $P = 100$이다.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 가격은 100이므로 옳다.
② X: 가격은 200이 아니다. 200을 대입하면 $Q = 400$이고 탄력성의 절댓값은 $4 \times \frac{200}{400} = 2$이다. 틀린 표현 '200' → 올바르게는 '100'이다.
③ X: 가격은 400이 아니다. 400을 대입하면 수요량은 음수가 되어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요점이 아니다. 틀린 표현 '400' → 올바르게는 '100'이다.
④ X: 가격은 600이 아니다. 600에서는 $Q = 1,200 - 4 \times 600 = -1,200$으로 수요량이 음수가 된다. 틀린 표현 '600' → 올바르게는 '100'이다.
계산 결과 가격은 100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요함수의 기울기 −4만을 탄력성으로 보거나, P/Q를 Q/P로 뒤집는 실수가 핵심 함정이다. 가격탄력성은 기울기에 현재 가격과 수요량의 비율을 곱한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수요함수에서는 먼저 $\frac{dQ}{dP}$를 구한 뒤 $|\varepsilon_P| = \left|\frac{dQ}{dP}\right|\frac{P}{Q}$에 대입한다. 그다음 탄력성 식에서 얻은 P와 Q의 관계를 원래 수요함수와 연립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 수요의 점탄력성은 '기울기 × 가격/수요량', 즉 $|\varepsilon_P| = \left|\frac{dQ}{dP}\right|\frac{P}{Q}$이다.

NoteBase

문 18. 화폐금융정책 운용체계에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명목기준지표로 제시한다.

②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을 어렵게 한다.

③ 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을 완화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상승률의 수치 목표를 공표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운용체계인지 묻는다.

핵심 개념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중기적으로 달성할 물가상승률 목표를 명시하고, 통화정책을 그 목표 달성에 맞추어 운용하는 제도이다. 공표된 목표는 통화정책의 명목기준지표가 되며, 신뢰성이 확보되면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앙은행은 일정 기간에 달성할 물가상승률의 수치 목표를 공표한다. 이 목표는 통화정책 운용의 명목기준지표 역할을 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을 어렵게 한다'이다. 실제로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가상승률 목표의 공표가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 정착시켜 그 형성을 돕는다.
③ O: 물가상승률은 관측 가능한 지표이므로, 공표한 목표와 실제 물가상승률을 비교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④ O: 중앙은행이 사전에 물가상승률 목표를 공표하고 이에 맞춰 정책을 운용하면 재량적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목표를 공표하면 기대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뒤집어 놓았다. 물가안정목표제의 핵심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가안정목표제 선지에서는 수치 목표의 공표, 물가상승률에 의한 사후 점검,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 동태적 비일관성 완화가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기대 형성을 어렵게 한다거나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반대 방향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물가목표 공표 → 기대인플레이션 정착 → 정책 신뢰성 및 시간일관성 강화이다.

NoteBase

문 19. 甲국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甲국(대국)과 교역 상대국 乙국(소국)이 모두 변동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甲국이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① 甲국은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② 甲국은 대내적으로 통화량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③ 甲국은 자국의 총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④ 甲국의 양적완화정책은 乙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변동환율제와 자유로운 자본이동 아래에서 대국인 甲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자국과 상대국의 총수요·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핵심 개념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 하락 압력을 만들고,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유발한다.
변동환율제에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자국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은 줄어 자국 순수출과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대로 상대국 통화는 가치가 상승하므로 상대국은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방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화량 증가와 자본유출로 甲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甲국 재화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② O.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자율 하락·통화가치 하락·순수출 증가를 거쳐 甲국의 총수요와 산출을 확대할 수 있다.
③ O. 甲국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순수출 증가는 총수요의 구성요소인 순수출을 늘리므로 甲국의 총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乙국의 무역수지 흑자'이다. 甲국 통화가치 하락은 乙국 통화가치 상승을 뜻하므로 乙국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乙국의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방향이다. 올바르게는 '乙국의 무역수지 적자 또는 흑자 감소를 가져온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를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한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은 상대국 통화가치 상승과 동전의 양면이므로, 甲국의 무역수지 개선이 곧 乙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이 나오면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자본유출 → 자국 통화가치 하락 → 자국 순수출·총수요 증가'의 흐름을 적용한다. 이어서 상대국에는 통화가치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확장적 통화정책 → 자국 통화가치 하락 → 자국 순수출 증가, 상대국 순수출 감소이다.

NoteBase

문 20. 어느 소비자의 X재와 Y재에 대한 효용함수는 $U(x, y) = x^{0.5}y^{0.5}$이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48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은 각각 8과 2라고 할 때, 이 소비자의 X재와 Y재에 대한 최적의 소비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x와 y는 각각 X재와 Y재에 대한 소비량이고, 소득은 X재와 Y재에 모두 소비된다)

① X재 소비량: 3, Y재 소비량: 12

② X재 소비량: 4, Y재 소비량: 8

③ X재 소비량: 5, Y재 소비량: 4

④ X재 소비량: 6, Y재 소비량: 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수가 각각 0.5인 코브-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 소득을 두 재화에 각각 절반씩 배분하여 최적 소비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득은 48이고 가격은 $p_x = 8, p_y = 2$이다.
효용함수는 $U(x, y) = x^{0.5}y^{0.5}$이므로 X재와 Y재의 지출비중은 각각 0.5이다.
소득은 두 재화에 모두 소비되므로 예산식은 $8x + 2y = 48$이다.

사용할 공식

코브-더글러스 효용함수 $U(x, y) = x^a y^b$에서 $a + b = 1$이면 최적수요는 $x = \frac{aM}{p_x}, y = \frac{bM}{p_y}$이다.
지수 a, b가 각 재화에 지출하는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므로, 이 문제에서는 각 재화에 $0.5 \times 48 = 24$씩 지출한다.

계산 과정

1. X재 지출액은 24이므로 $x = \frac{24}{8} = 3$이다.
2. Y재 지출액은 24이므로 $y = \frac{24}{2} = 12$이다.
3. 예산식에 대입하면 $8 \times 3 + 2 \times 12 = 48$이므로 소득도 모두 소진된다. 또한 접점 조건 $MRS = \frac{MU_x}{MU_y} = \frac{y}{x} = \frac{p_x}{p_y} = 4$에 $(x, y) = (3, 12)$가 부합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x=3, y=12$는 각 재화에 소득 24씩을 배분한 최적 소비량이다.
② X: $(4,8)$은 예산식 $8x+2y=48$은 만족하지만 $\frac{y}{x}=2$로 가격비율 4와 다르다. 틀린 표현 $x=4, y=8 \rightarrow$ 올바르게는 $x=3, y=12$이다.
③ X: $(5,4)$도 예산은 모두 쓰지만 $\frac{y}{x}=\frac{4}{5}$이어서 효용극대화 접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x=5, y=4 \rightarrow$ 올바르게는 $x=3, y=12$이다.
④ X: $(6,0)$이면 $U(x,y)=x^{0.5}y^{0.5}=0$이므로 양의 효용을 주는 내점해보다 열등하다. 틀린 표현 $x=6, y=0 \rightarrow$ 올바르게는 $x=3, y=12$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모두 예산식은 만족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예산을 전부 썼다고 최적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내점해에서는 한계대체율이 가격비율과 같아야 한다. ④는 한 재화를 0만큼 소비하면 곱셈형 효용이 0이 된다는 점을 놓친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코브-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는 먼저 각 지수를 지출비중으로 읽고, 각 재화의 지출액을 가격으로 나누어 수요량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식과 $MRS=\frac{p_x}{p_y}$를 함께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코브-더글러스형 $x^a y^b$에서는 지수비만큼 소득을 배분한다. 이 문제는 0.5 대 0.5이므로 소득을 반씩 쓴다.

NoteBase